북미주 이화동창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EWHA WUAANA
www.ewhaian.org
E-mail: EWUAANA@gmail.com
Phone: (605)-376-3806
발행인: 장명주 편집인: 임성숙

동창은 이화가 배출한 보배, 우리의 생동력은 이화의 보람

2012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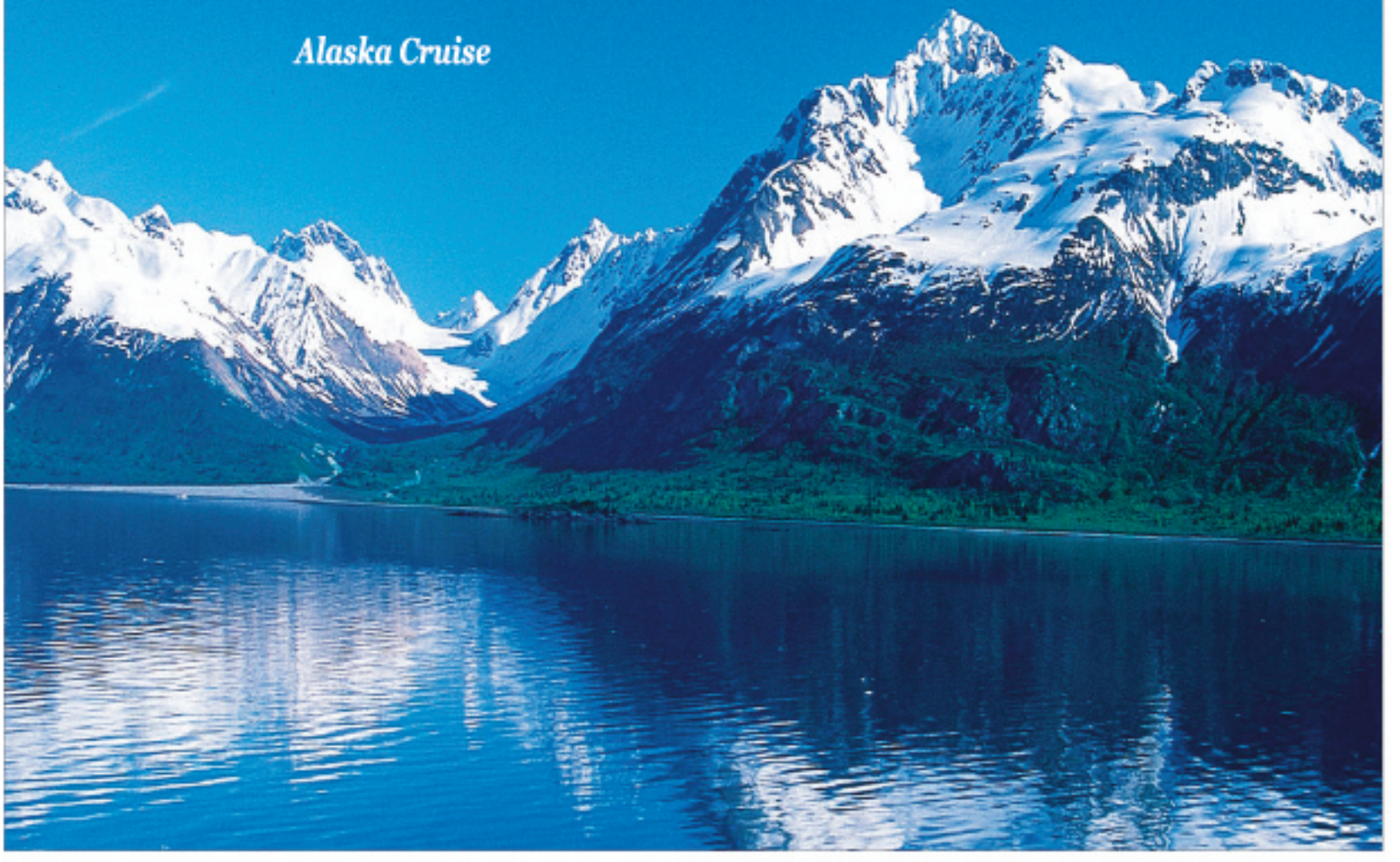
Alaska Welcomes Ewha Alumni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2012 Annual Conference

July 8-15, 2012

Alaska Cruise



교훈

이화가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 이념들을 진(眞), 선(善), 미(美) 라는 간결한 표어로 정의한다.

풍부한 지혜와 지식, 아름다운 덕성과 정서를 조화롭게 지닌 인성교육은 이화가 추구하는 전인교육 이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가 최상의 가치로 삼아온 진, 선, 미는 하늘에 속한 것인 동시에 인간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이화의 교훈은 1930년 무렵 당시 문과 교수이던 김상용(金尙鎔) 선생이 간결하고 명확한 '진, 선, 미'를 제안하였고, 교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제정되었다.

眞 진

진은 지(知), 즉 학문의 전당으로서 이화가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대학이 지식의 탐구를 게을리하면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만다. 더구나 지혜의 원천이며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이화여자대학교는 지식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최대한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문 연구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

善 선

선은 덕(德)이다. 지식은 인간에게 선하게 사용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지니고 있는 지고지순의 아름다운 덕성, 그것은 사랑의 정신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국만리 타향의 벽안의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데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이며, 공동체 사회와 인류사회의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염원이다. 이화인들은 이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자신을 지혜롭게 갈고 닦으며, 나아가서 책임 있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헌신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美 미

미는 조화(調和)를 의미한다. 그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예술적 정서이다. 모든 인간에게 내재하는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자유와 독특한 개성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화가 추구하는 미(美)의 참된 개념이다. 이화는 전방향의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경영해 나갈 창조적인 지식인을 양성할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다.

차례 | Table of Contents

- 이사장 인사말 – 한영숙 4
- 회장 인사말 – 장명주 5
- 동창 컬럼 – 최경숙 6
- 의대 소식 – 김명미 7
- 장학사업 안내 – 고순정 8
- 장학생 수필 – Lucia / Kacy / Joon 9
- 동창 활동소식 – 오구미 10
- 동창 활동소식 – 김광자 11
- 동창 탐방 12
- 총회를 마치며… 13
- 총회 사진 14
- 크루즈소식 – 일정표 18
- 크루즈소식 – 관광지 소개 19
- 수필 – 이화와 우리 어머니 / 장명주 20
- 수필 – 난 / 강정애 21
- 수필 – 삼대 독자와 칠공주 / 김정희 22
- 시 – 이화 / 이지연 23
- 수필 – 나의 이야기 / 박정자 24
- 수필 – 은퇴한 어느 노인의 소망 / 강화영 25
- 지회소식 26
- 추모 – 고 김경애 29
- 임원명단 30
- 북미주 동창회 기금 / 총회 이사회 Agenda 31
- 광고 32

이사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San Diego 에서 반갑게 만난 것이 어제 같은 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저희가 'One Ewha'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온 정열을 쏟아왔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진지한 대화의 기회를 가지려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우리가 다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회장님이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다시 함께 모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소원하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미주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 저희 임원들은 좀 더 창의적인 동창회 활동과 효율적인 동창회 운영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크루주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기대했던것 보다 훨씬 반응이 좋아서 준비 위원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않고 북미주 동창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임원들께 감사 드리며 특히 이번 크루즈 여행 계획을 담당한 임원분들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 북미주동창회는 서로 돕고 아끼며 만나면 즐겁고, 또한 서로에게 배우는 것도 많아서 동창회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할 수 없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2012년 크루즈 총회에서 반가운 만남을 기대하며, 이번 크루즈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다른 기회에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사장 한 영 숙 (영문, '60)

회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2012년은 특색있는 한 해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날씨까지도….

올 해는 제가 있는 이 곳 South Dakota에는 봄이 너무 일찍 찾아왔지요. 마치 선후배님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제 마음 같이.

먼저 오늘의 이화인들의 모임이 있을 수 있게 해 주신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회장직을 맡음으로서 선후배들과의 관계도 가까워졌고 또한 여러 이화 모임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제게는 매우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느껴집니다.

현재 북미주 전 지역에 살고있는 이화동문들이 다 한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모교사랑과 동창들의 정을 함께 나누는 데 어떤 장벽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되어, 조금씩 모두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 전진해 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웃을 날이 곧 오겠지요. 단지 그 날이 올때까지 우리 모두의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요.

2012년도 북미중 동창회는 Alaska Cruise 여행을 통해 즐겁고 재미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멋진 계획과 진행을 준비하고 계신 임원단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여행은 여러분 모두에게 오랫동안 남게 될 의미있고 추억 어린 여행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자연의 싱그러움,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즐기며 더욱 '젊어지는 순간'들이 쌓이는 여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때까지 편히 계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회장 장 명 주 (의대, ' 77)

하나가 되어

최경숙 (영문, ' 66)

신록의5월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졸업 50주년 재상봉 행사 참석을 한달 앞두고 요즘 나는 설레임에 하루 하루를 보낸다. 낭만을 즐기며 소녀의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었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훌륭하신 여러 스승들의 열정어린 지도 아래 자유, 평화, 사랑의 기본 정신을 가지며 성장할 수 있었던 중고등학교 6년간의 뿌리교육과 이화대학에서의 기독교적 바탕의 여성교육을 접할 수 있었음에 한없이 감사한 마음이다. 일찌기 고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 와 이젠 미국이 제 2의 고향이 되었지만 힘들고 외로웠던 생활 속에서 나는 이화에서의 감리교 신앙교육 덕분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고 크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진정한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 지금의 나는 이화의 창립자 Mary Fletcher Scranton 선생의 헌신적인 사랑과 열정에 감사하며 여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 가고 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로 Scranton 여사는 1886년 불모지인 한국 땅에 학생 한명으로 이화 학당을 세웠고 그것이 한국 여성교육의 시작이었다. "미지의 나라 한국에는 가난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퍽 많다" – 이 문제가 스크랜턴 여사로 하여금 여러 날들을 잠 못이루게 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남편을 잃은 여사는 인생에 대한 좌절감 대신 늘 마음 속 깊히 맴도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기로 다짐했다. 한국으로 건너가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뜻있는 일을 하며 마지막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단한 것이었다. 1885년 의사인 아들과 함께 한국 선교를 위해 배에 올랐을 때 그녀는 이미 52세 이었다. 삶의 마지막 문턱에서 모두가 안주하기를 원하는 나이에 불쌍한 한국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할 각오를 할 수 있었던 그녀의 헌신적인 삶이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화인 들에게 감동감화를 주는 것이다.

이화는 과거 120여년 동안 한국의 많은 여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유함 속에서 교육시켜 오늘날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했다. 12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이화의 우수한 교육역량을 전세계 여성들과 함께 나누기위해 개발도상 국가의 여성 인재들을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세계 여성들이 더 큰 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 21세기 세계의 리더를 양성하고 있는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EGPP)"은 이화여대가 설립정신에 기초한 나눔 활동을 국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카니스탄, 네팔, 모잠비크, 케냐 등 5년 사이 총 27개국에서 117명이 수학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의 많은 여성들에게 기쁜 소식이며 또세계에 산재해 있는 이화인들에게는 퍽 자랑스러운 일이다.

일찌기 고국을 떠나 스크랜턴 여사의 고향인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이화인들은 여사의 헌신적 봉사와 숭고한 정신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했으면 한다. 이화에서 그리스도 정신의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하고(성결) 화평함(평화)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빛진자들로서 이제는 세계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이화의 진·선·미의 향기를 널리 퍼트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개개인은 미약하지만 우리들이 동창회란 울타리 안에서 하나되어 뜻과 힘을 합한다면 모교를 돕고 이 사회를 위해서도 뜻있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얼마전 신문에서 대한 체육협회의 소식을 접하며 퍽 고무적인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그동안 미국에서 발족하여 활동을 지속해 오던 두개의 한미체육협회가 모국 본부에서 합치지 않으면 둘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급속히 하나가 되는 세부 사항을 모색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사회단체들도 긍정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변화를 하는 이 때 마음 아프게 두개가 된 북미주 이화동창회도 깊히 그 입장을 점검해 봄이 마땅하다. 이화인들은 깨달음과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드릴 수 있는 멋진 자매들로 거듭나기를 기도한다. 하나가 되는 일에 정진하여 북미주에 산재해 있는 1만여 동창들에게 진정 다가 갈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동창회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래 본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하루 하루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북미주의 이화인들은 주님의 사랑안에서 화평을 실천하여 아름다운 친목과 협조 가운데 하루속히 하나가 된 동창회를 통해 모교의 발전을 적극 도우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더 많은 아름다운 결실을 빚어내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일을 할 수있고 좋으신 주님은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분이심을 확신하기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 동창회

김명미 (의대, ' 67) 의과대학 북미주 동창회

안녕하십니까?

의과대학 북미주 동창회는 초대 회장이신 이학헤 선배님과 부회장 조용욱 선배님 그리고 뜻을 함께한 여러 의대동창들의 발족 취지의 뜻을 존중하여 꾸준한 발전을 소원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를 포함해 북미주 전 지역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400여명의 의대 동창주소록과 동창들의 소식과 친목을 위한 network system 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본교 의대에서는 서현숙 학장님을 위시하여 새 병원 건립과 세계화를 위해 활기찬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성취하는데 미주 의대동창들의 재정적 지원은 큰 힘이 될 것이며, 세계화의 일원으로 학술교류 및 문화교류등, 활동과 친목의 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현재 안정옥 총무는 이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5월말 메이데이를 겸해 본교 의대생들과 수련의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대 모금이 $200,000 정도(이화국제재단) 모였으며, 지난 해 모금의 일부 $20,000을 본교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목동병원을 위해 지정 모금을 해 온 결과 병원 건립에도 작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후원금은 이화 재단이나 북미주 동창회를 통해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북미주 이화동창 알라스카 크루즈 여행에 20여명의 의대 동창들과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동창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하는 멋진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2년은 동창간의 친교와 모교의 세계화 도약에 우리 북미주 의대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면을 허락하여 주신 북미주 동창회에 감사하며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장학사업 안내

고순정 (의대, ' 77)

북미주동창회 장학사업은 2005부터 이상인 선배님께서 초대 회장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매년 이화 동창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왔습니다. 작년부터는 뜻있는 몇 동창들의 특별 장학금 기부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북미주 동창회는 매년 미국으로 유학 오는 이화동창 1명을 선정하여 $3,000 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작년부터 북미주에 거주하는 이화동창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2년도 총 장학금 예산을 $10,000 로 세웠습니다. 북미주 동창회 장학 사업은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이화 가족의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을 주며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을 참조하시고 주위에 있는 이화 동창들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동창회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www.ewhaian.org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동창회 장학사업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에서는 북미주에 유학 오는 이화 대학생, 대학원학생과 북미주 동창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신설하여 장학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서는 www.ewhaian.org에서 download 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원본과 복사본 (3), 성적증명서, 추천인이 직접 보내야 하는 추천서 (2)입니다.

각 전공 분야에서 우수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경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중 2012 년에는 6명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수여하게 됩니다.

$1,000 3명 $2,000 2명 $3,000 1명

신청서: www.ewhaian.org website에서 download

신청마감일: 2012년 7월 30일

보낼곳: Dr. Myung J. Cho, 4401 S. Minnesota Avenue, Sioux Falls, SD 57105

연락처: 605-334-6085/376-3806. midwestpain@gmail.com

4401 S. Minnesota Ave., Sioux Falls, SD 57105

장학생 수필

Dear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Thank you very much for awarding me your prestigious scholarship. Your generosity has helped me successfully finish my junior year here at Yale. I would like to share numerous opportunities that the scholarship created for me by liberating my mind and body from working a third job on campus.

I worked closely with various preeminent professors on environmental health issues such as the safety of chemicals in insulation materials. In addition to learning how to play e-flat clarinet in Yale Symphony Orchestra, I served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a non-profit college consulting group called ReadySetLaunch. Now that the academic year is over, Yale has awarded me with fellowships to conduct research during the summer on air quality in New Haven public housing and schools as well as intern with Danish Architecture Center in Copenhagen where I will research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cities such as Songdo in South Korea. Without Ewha's help, none of this would have been possible.

The end of another school year signals for a time of reflection. This May, I cannot help but reflect on the bond formed between Ewha Womans University and me as its Alumnae Association helped me freely pursue my interests and goal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faith in my dreams, and I hope to strengthen our bond as I strive to adopt Ewha's renowned standards for excellence and its spirit of giving in my life.

Best Regards,
Lucia Woo (Yale '13)

Dear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I am writing to thank you for your generous $2000 Ewha Woman's University Scholarship. I was ecstatic to learn that I was selected as the recipient of your scholarship. I am very appreciative of the opportunity you've given me, despite me sending in the application past the due date. I truly value my education here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ollege of Dentistry, and this scholarship had lightened the financial burden and afforded me the opportunity to continue with my educational pursuits. Thank you again for your generosity. I look forward to the time that I can help others as you have helped me.

Sincerely,
Kacy Young-won Jo
DMD Candidate, Class of 2015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ollege of Dentistry

Dear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Hello, my name is Young-Joon Jo (son of Yuna Sung, engineering student at UIUC) and I wanted to thank you for choosing me as a recipient of the Ewha Woman's University Scholarship. It has helped to relieve a lot of stress from my family as we struggle to pay for college tuition, along with many other bills. I cannot wait to give back to the world that has helped raise me and shape who I have become.

I will not let you down,
Joon

'Featured Artist Ku-mie Kim' Artist's Statement

오구미 (의대, ' 78)
Ku-mie Kim, M.D., Ph.D., Professor

The opportunity to become a botanical artist began as serendipity and developed into one of the greatest blessings and a passion in my life. However,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excellent botanical art education programs at the Morton Arboretum. From the very first 'eye-opening' class with Kim Mullarkey, 2002, I have been enticed to the new genre of 'botanical art', which I didn't even know to exist before. It has awakened my potential ability of close observation to appreciate the beauty from ordinary components of surrounding Nature which could be, otherwise, easily overlooked. I never knew a tiny flower could have such a flawless and exquisite design with perfect balance and symmetry. I never knew there were so many different 'green' colors in Nature.

It continually fills me with incredible, awesome wonder and leads me to consider our Lord, the Creator, how skillful He is! It is that joy and wonder I want to share with others through my paintings. And it is my way of giving "ad majorem dei gloriam (Greater Glory to God)", I believe. I have received the Botanical Art Certificate in 2006 at the Morton Arboretum. Along the way, many wonderful, inspiring artist teachers taught me to make who I am now as a botanical artist. Nature Artists Guild (NAG) of the Morton Arboretum has been another pivotal part of my artist life.

Recently, I was honored with a silver medal at the international juried BISCOT (Botanical Images Scotia) exhibition at Edinburgh, Scotland, UK, where I submitted eight watercolor paintings. In 2009, my painting-Chinese Lantern (Physalis alkekengi)-has been selected for the International Juried Exhibition of the American Society of Botanical Artists and displayed at the Phoenix Art Museum in Phoenix, AZ. In 2010, I was invited to the University of Michigan Hospital in Ann Arbor, MI to have solo exhibition of my botanical paintings as the part of their Gift of Art program. My other awards include the "Best of the Show" at the La Grange Art Gallery Exhibition in January, 2009, the "First Place" three times in 2004, 2005 and 2008, and the "Viewers' Choice" in 2006 at the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Art Exhibit.

In addition to NAG and ASBA, I am a member of Reed-Turner Botanical Artists Circle of Long Grove, IL and La Grange Art League as well. By profession, I am an obstetric anesthesiologist and have worked at Loyola University Medical Center in Maywood, IL over 20 years. When I first started this botanical art, I used to joke this would be my retirement project. As time flies by and it is approaching closer and closer, I realize it is not a joke any more. I feel so thrilled about the idea that once retired, I will be painting all-day, not worrying about painting at night and going to bed at 3 o'clock in the morning just to get up back for work. Just thinking about it, my heart is filled with joy and excitement. I am so looking forward that day would come soon. Botanical art is truly one of my greatest blessings.

(Author's Note: This article was written as the "Featured artist" at the Annual Holiday Exhibition of the Natural History at the Morton Arboretum in November, 2011 and published in the Quarterly magazine of the Nature Artists Guild.).

지난해 늦가을 11월에 Morton Arboretum 에서 열리는 오구미 동문의 작품 전시회에 이화동문들과 함께 참석했다. 이번 전시회의 주인공 오구미 동문, 당당한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으며 작품 설명을 하고있다. 끊임 줄 모르는 찬사를 받는다. 환한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인다. 자랑스러운 이화의 딸이다. 우리도 덩달아 가슴 뿌듯해

같이 사진도 찍고 작품들을 보고 감탄하며 감동을 받고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나는 늘 주위에 이렇게 훌륭한 동문들을 만나게 되면 참 행복하다. 내가 이화를 나왔다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오구미 동문의
작품을 소개하며
동문자신의 글을 함께 동봉합니다.

구광자 (가정, ' 67)

재외동포신문이 선정한
2011 올해의 인물
사회봉사 부문 수상

김광자 (불문, ' 66)

재외동포신문이 선정한 "2011 올해의 인물" 7개 부문의 수상자 가운데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 위원회(이하 정대위) 회장, 김광자 동창이 사회봉사 부문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다. 워싱턴정대위(김광자 회장)는 세계정치 1번지인 미국의 수도, Washington D.C.의 입지 조건을 살려 미 의회로 적극 입성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을 미국에 초청하고 청문회 / 증언 / 심포지엄을 통해 미 국회의원들과 학계에 알리며, 동시에 미 국회 의사당, 미국 대학,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등지에서 정신대 관련 사진 전시회를 수차례 개최하며 시청각 교육을 활발히 펼쳤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20여만 명의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 성 노예로 강제 동원한 역사적 실체 규명을 위해 일본계 3세인 마이크 혼다 의원 등과 함께 2007년 7월 하원 결의안(H.R.121)을 만장일치 통과로 이끌어내는 성과도 얻었다. 이는 미주 한인들의 풀뿌리 운동의 성공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50만명 서명 운동, 종군 위안부 추모비 건립결의안 도출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권과 평화의 문제로 인식시키는 공로를 인정 받았다.

워싱턴 정대위는 1992년 12월 워싱턴 한인 지도자들이 결집하여 이동우(영문'57) 동창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버지니아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발족된 501(c)(3) 비영리 단체이다. 워싱턴 정대위는 2012년 12월에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Washington D.C.에 "종군 위안부 추모비" 건립을 위해 "추모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세우고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역사 바로 잡기" 운동을 위해 준비 중인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심포지엄등은 현재 개인적 후원은 물론 국내외 여러 기관으로 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김광자 동창은 1994년 부터 워싱턴 정대위 재무이사로, 2002년 부터는 수석부회장으로서 직책을 수행했고 2009년에 회장직을 맡아 선두에서 이동우 이사장님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다. 국가 차원에서 냉담했던 한국 정부도 이젠 태도를 바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8일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일본 노다 총리에게 일본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 계실동안 정중히 공식 사과를 하고 진정어린 보상을 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광자 동창은 Fairfax County정부에서 accountant로써 10여년간 근무했으며, 그 후 남편이 세계은행 주재대표로서의 직책 수행 당시 폭넓은 해외 외교생활과 사회활동을 해 왔다. 그리고 한인사회 에서 한인 이민100주년 기념사업회-D.C. 부회장/모금위원장, 메릴랜드 상록대학-영어 강사, 글로벌 어린이재단(GCF)-워싱턴 DC 지부 회장,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KOWIN)-워싱턴지부 회장, 이화여고,이화여대북미주 동창회장/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워싱턴 D.C. 정대위 회장으로 활약 중이다. 그리고 한미교육재단, 워싱턴 가정상담소, 한미장학재단, 미주한인재단 등 이사로서 오랫동안 봉사해 왔다.

김광자 동창은 1966년 불문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워싱턴 DC 지회 동창회장, 북미주 동창회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꾸준히 동창회 운영과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으며, 특히 2009년 이화 동창 통합을 위해 통합대책위원의 일원으로, 공동회장으로, 공동이사장으로 통합 동창회 Task Force Member로 물심양면으로 북미주 동창들의 규합을 위해 끈임없이 노력해 왔다.

남편 최승흥 사장과 슬하에 2녀 1남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남편께서는 세계은행에서 정년 퇴직 후 Global Consulting 회사를 경영하고있다. 부군께서는 멋있는 부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외조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왔고 북미주 동창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한 열성적인 후원자로 일찍부터 인정받는 멤버이며 자랑스러운 이화인 뒤에 자랑스러운 남편이 계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부부이다.

함께 하고 싶은 이윤경 동창을 보내며…

좋은 만남은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됨을 나이가 들며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인간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세번의 뜻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의 인격체로 다듬어지며 각자의 인생항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닐런지…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은 첫번째 만남의 축복이다. 또한 좋은 스승을 만나야 온전한 꿈을 키우며 자랄 수 있고 이것이 두번째 만남의 축복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진로가 바뀌는 것이다. 이는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을 통해 많은 만남의 축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화여대 북미주동창회에 나가면서 동창이란 특별한 인연으로 한세대가 넘도록 좋은 벗이 되어 꾸준히 교제를 하며 지낼 올 수 있었음은 분명 나와 여러 다른 동창들에게 큰 축복이었다. 그렇게 아끼는 동창이 이제 잠시 다시 한국으로 삶의 보금자리를 옮긴다는 소식에 섭섭한 마음으로 자매를 보내며 그동안 함께지낸 그녀와의 특별한 만남을 고마워하며 지나간 일들을 회상해 보고저 한다.

이윤경 동창은 1967년 이화여대 가정과를 졸업한 후 도미하여 직장생활을 하다 컴퓨터 공학을 수학하여 1987년 Polytechnic Institute of New York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5년 IBM Fellow Emeritus로 은퇴하기까지 IBM T.J. Watson 연구소에서 Research Staff Manager로 근무해 왔다. 재속 치스코 미국 국가 형제회 평의원으로 봉사하며 그녀는 늘 관심을 갖고 있던 종교학을 공부하여 2007년 Fordham College에서 종교학 박사를 받았으며 세계 종교에 대한 이해를 Westchester Community College에서 가르쳐 왔다. 2008년에는UN NGO 환경영성 소위원회(Eco-Spirituality)를 설립, 한동안 director로 헌신하며 여러 종교 단체의 대표들과 함께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그녀는 환경영성 소위원회를 통해 환경보존을 위한 많은 활동도 하며 이에 관한 세미나와 잡지를 통해 "환경보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반대중 특히 공업화된 선진국에 살고 있는 이들의 의식과 이에 따른 생활 습관이 바뀌는 것이다. 우리들 대다수의 생각이 바뀌어 생태계의 보존이 생존과 직결된 것을 인식하게 되면 자연히 입법자들은 이를 따르게 되어있고, 과학자들 또한 생태계의 위기 해결을 위한 연구와 개발에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조리 있게 설명하곤 했다. 또한 그녀는 환경보존의 열쇠로 조화와 일치를 들었다. 환경영성은 인간은 우리의 주거지인 지구 대지와 조화를 이뤄야 하며 이 관계의 변화가 행동으로 이어져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인간 사이의 관계는 물론 나아가 인간과 모든 생물, 무생물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 땅의 다양한 생명체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며 소비주의 개인적 성향으로 부터 탈바꿈하여 다른 이들과 또 이 땅의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러한 것들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고 조용히 귀띔해 주었다.

내가 이윤경 동창을 처음 만난 것은 2002년 Washington, DC에서 열린 이화여대 북미주 동창회 총회모임에서 였다. 이윤경 동창은 "인간의 몸과 21세기 컴퓨터" 주제 아래 최근 21세기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디자인하는데 인간의 몸을 model로 하자는 혁신적인 연구가 일부에서 새로이 시작되고 있으며, "인간의 몸과 우주의 근본 법칙의 조화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를 흥미있게 설명해 주었다. 2003년 뉴저지 티넥에서 열렸던 총회에서는 이윤경 동창과 부군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함께 준비한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한 무료 컴퓨터 워크 샵의 속성 강좌로 동창들과 외부 인사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었다. 이 동창부부와 이대 동창들이 여러 해를 운영해 온 성 후랜체스카 성당에서의 컴퓨터 교실은 퀸즈 지역사회에 열린 마음으로 베푼 사랑과 헌신의 결실이였다. 이 동창은 2007년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주 이화동창 총회 때 "시인들을 위한 양자역학" 이란 주제로 상대성 원리와 함께 현대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양자론의 중요한 개념과 그 의미에 대하여 재미 있게 들려 주었다. 새로운 비젼아래 시대를 앞서가는 이윤경 동창은 그때 그때 다양한 주제로 동창들에게 흥미로운 감의를 해왔다. 우리는 그동안 북미주 동창회를 통해 동창들과의 만남에 대해 감사하며 서로 아끼며 깊은우정을 쌓아왔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이윤경 동창과의 헤어짐이 퍽 아쉽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 동창은 먼저 은퇴한 부군 김순권씨와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동안 고향산천의 풍미를 즐기며 살아갈 계획이다. 벌써 서울에 운치 좋기로 알려진 사직동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이미 Westchester Community College의 Adjunct Professor직도 사표를 내고 요즘은 7월에 떠날 한국행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동안 학교에서 가르치며 세미나에서 강의도 하며 늘 바쁘게 지냈고 건강을 챙기는 목적으로 토요일에는 날씨만 허락하면 부군과 함께 등산을 즐기며 신선한 자연 속에서 피로를 풀며 지내기도 했다. 아무쪼록 이윤경 동창 내외분이 한국에서 새로운 만남을 통해 좋은 세상, 좋은 사람, 좋은 작품으로 인생의 기쁨과 새로운 삶을 즐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1년 북미주 동창회를 마치고…

조효은 (교육, ' 71)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이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반갑고, 그리운 마음에 정성을 모아 우릴 찾아 먼 길 오시는 한 분 한 분 편안하고 즐겁고 잊지못할 방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도착하는 순간부터 총회를 마칠 때까지의 순서 하나 하나 재점검하면서 준비 했습니다. 해마다 각 지회의 동문들이 보여 주셨던 정성스러운 행사 하나 하나를 돌이켜 보면서, 그 분들의 수고에 감사했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으려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많은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을 마다 하지 않고 동창회에 참석하셨던 여러분들이 새삼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2011년 이대 북미주 총회가 열린 공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Mission Bay Hilton Resort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야자수가 있는 멋진 분위기의 호텔입니다. 늦가을이지만 일년내내 기온이 온화한 이곳은 햇살은 하얗지만 따뜻하여, 겨울을 맞기 시작한 지역에서 오시는 동문들께는 더 할 수 없는 반가운 선물입니다. 낯선 도시에 도착하면 호텔 찾아가는 길이 조금은 걱정스러워 하실까 마음쓰여 이곳 동창들이 이화 sign을 들고 맞았습니다. 공항의 재건축으로 소음과 더불어 parking lot이 폐쇄되어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었지만, 많은 동문들이 고맙고 특별한 대접이라고 좋아 하셨습니다.

10월 13일 오후에 임원 이사회로 공식 일정이 시작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앞으로의 우리 모임을 보다 창의적으로 갖기 위한 방법을 의논하였고, 이를 위해 권영자 동문께서 Alaska와 Caribbean tour, 동부 Cruise여행에 관한 정보를 PowerPoint로 준비하여 발표하셨습니다. 이윤경동문은 동문회 모임 장소를 대학 campus 기숙사를 이용하는 방법, workshop에는 동창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인에게도 개방하는 방법도 고려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미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10여년 모여 온 우리 동창회 모임이 다른 양상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어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식 buffet로 준비된 저녁 식사는 동문들의 여행의 피로를 덜어드렸고, 우린 역시 한식이 제일 맛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 미대 동문들의 작품 전시회가 harp music이 분위기 살려 주는 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김홍자 교수의 작품 설명으로 열심히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는 자랑스러운 화가 동문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동부에서 오신 동문들께는 오늘 하루가 길고 피곤하셨겠지만 모두들 경이로운 체력을 보이셨습니다.

10월 14일은 바닷가를 걷는 power walk로 시작되었습니다. 정해주 동문의 인도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운치있는 Mission Bay경치에 경탄을 했습니다. 의대동창회는 사업보고와 내년의 활동계획을 의논하였고, 차기회장으로 김명미 동문을 선출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사업 보고, 사업계획, 예산을 통과시키었고, 차기 회장으로 장명주 동문을 인준하였습니다. 또한 북미주 동창회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동문 어머니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동문들의 친목을 더욱 도모하기 위해 여행을 계획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두대의 버스로 일본 buffet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예쁘게 장식된 수십가지 음식은 diet은 잠깐 뒤로 물리고 두-세 차례 먹을 정도로 맛이 있는 점심이었습니다. 버스로 San Diego 관광지인 Balboa park를 지나 뗄간 지붕의 목조 건물인 Hotel del Coronado에 머물어 사진도 찍고 Downtown, Shelter Island, Point Loma national park, 등대를 방문하니 저녁 만찬 준비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멋진 옷으로 한껏 멋부리고 저녁 만찬에 오신 동문들과 부군들, 정은옥동문의 violin 전주는 classy한 party의 기분을 고조해 주었습니다. 구은서 동문의 재치있는 사회로 각 지회의 장기 자랑을 하였고, 함께 어울린 dance로 오늘 먹은 점심과 저녁 calorie는 다 소화시켰을 거라 위로 하였습니다. 역시 우리 이화인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놀고.... 모두 수준급이라고 자화자찬 하였습니다.

10월15일 workshop은 정해주 동문의 사회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백우현 박사님의 "smart technologies", 김명미 동문의 "아름다운 대화", 장명주동문의 "How to manage pain"은 학구열이 높은 동창들이 한시간씩의 강의 시간이 짧다고 불평할 정도였고,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쉽고 humorous하게 말씀해 주신 강사님들께 감탄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강의 PowerPoint presentation 자료는 동창회 website에 있습니다.)

오후에는 버스를 타고 어제 다 못 본 관광지들, Mission bay, La Jolla, Soledad Mountain, UCSD를 거쳐 San Diego 가 시작된 Old Town의 historical site인 restaurant에서 Mexican 식사를 하였습니다 .

다시 호텔로 돌아와 바닷가 bon fire 에 둘러 앉아 김광숙 동문의 기타반주에 맞추어 오래전 즐겨부르던 노래를 부르며 헤어질 시간을 아쉬워 하는 마음을 위로 합니다. 모닥불에 구운 군 고구마 냄새, 이 또한 잊지 못할 추억거리입니다. California 최 남단 도시 San Diego에 어둠이 옵니다. 이제 사흘간의 모임을 끝 마칠 시간이 다가 옵니다.

10월 16일 예배와 간담회로 총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화동창이란 인연으로 이렇게 마음이 쉽게 열리고 친숙해지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가까이 또 멀리 계신 동문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총회 모임을 마치고 나니 감사한 마음과 함께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꿈속 같은 사흘을 보내고 매일의 일상으로 돌아와 새롭게 공유할 추억을 만든 동문들과의 재회를 또 기다립니다.

총회 준비와 진행을 도와 주신 샌디에고 동문님들, 멀리서 전화로 응원해 주신 동문님들, 참석하신 동문님과 부군님들, 넉넉한 살림할 수 있도록 후원금 선뜻 내 주신 동문님들, 명강의로 우리의 학구열을 일으켜 주신 강사님들, 동문 전시회에 출품하신 동문들 감사합니다.

14 Many thanks to Dr. Kim, 이희련(의대,63)부군, for taking great pictures.

Many thanks to Dr. Kim, 이희련(의대,63)부군, for taking great pictures.

16 Many thanks to Dr. Kim, 이희련(의대,63)부군, for taking great pictures.

Many thanks to Dr. Kim, 이희련(의대,63)부군, for taking great pictures.

크루즈 소식 - 일정표

일 / 날짜	지 역	시 간	행 사 내 역
1 7/8 (일)	Seattle, WA	4:00 PM	• 시애틀 공항에서 미팅 (❋ 출발전 공지사항 발송할 예정임) (오전 10:30 ~ 오후12:00사이, 시애틀 항구 (Pier 66)에서 승선하십니다. • 오후 4시 인사이드 패시지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2 7/9 (월)	인사이드패시지 (Inside Passage)	전 일	• 전일 인사이드 패시지 (내수면)을 저속 항해합니다. ❋ 알라스카의 인사이드 패시지는 예로부터 인디안들의 수송로로 이용 되었으며 아름다운 해안과 장엄한 산맥으로 이루어진 절경을 자랑함. • **북미주 동창회 주최** "CONFERENCE" (09:00 ~ 11:30 AM) • **북미주 동창회 주최** "WELCOME PARTY" (02:00 ~ 05:00 PM)
3 7/10 (화)	주노 (Juneau)	2:00 PM 10:00 PM	• 알라스카주의 주도인 주노 도착후 시내관광 기항지 선택관광: 멘델홀 빙하관광 (3시간 30분소요, $ 45) ❋ 주노는 1880년대 골드러쉬때 생겼으며, 오늘날 알라스카에서 가장 장엄하고도 부유한 지역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위치한 몇개의 거대한 피요르드는 탄성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4 7/11 (수)	스캐그웨이 (Skagway)	7:00 AM 9:00 PM	• 스케그웨이에 도착 및 시내관광 기항지 선택관광: 기차여행 (3시간 30분소요, 왕복, $ 150) ❋ 유콘지역(캐나다)의 클론다이크에서 금광석이 발견되면서 탐험가들이 금광을 찾아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스케그웨이는 광부및 물자를 운송하는 그들의 주요 항구였습니다.
5 7/12 (목)	빙하 국립공원 (Glacier Bay NP)	전 일	• 1992년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이된 빙하국립공원,, 그레이셔 베이!! 만년설과 빙하가 깔려있고 흰 눈이 덮인 환상적인 산봉우리들이 펼쳐져 있으며 바다표범, 고래, 돌고래 같은 해양동물의 서식지로, 이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북미주 동창회 주최** "CONFERENCE 2" (09:00 ~ 11:30 AM) • **북미주 동창회 주최** "DANCING NIGHT" (09:00 ~ Midnight)
6 7/13 (금)	케치칸 (Ketchikan)	6:00 AM 1:30 PM	• 세계최대의 연어도시 케치칸 도착후 시내관광 기항지 선택관광: 야생체험및 삭스만 원주민 마을투어 ($ 49)
7 7/14 (토)	빅토리아 (Victoria)	06:00 PM 11:59 PM	• 브리티쉬 콜럼비아의 주도이며, 매력적인 항구도시 빅토리아에 도착, 기항지 선택관광: 부차드 가든 (4시간 소요, 불꽃놀이 포함 $ 69) ❋ 여권, 영주권/미국 복수비자 필요
8 7/15 (일)	Seattle, WA	8:00 AM	• 오전 8시, 시애틀 크루즈 터미널에 도착, 유람선에서 제공되는 아침식사후 하선, 항공편으로 각지역으로 돌아가십니다. 안녕히 가십시요. **^^**

수 천개의 아리따운 별, 거대한 빙하, 이름 없는 섬들과 울창한 살림, 야생동물들의 천국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천혜의 대자연과 벗을 삼아 한 잔의 진한 커피와 함께 내 마음의 휴식을 찾는다면 알라스카 크루즈 여행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1 시애틀

미국 북서부 최대의 도시로, 캐스케이드산맥 서쪽 기슭 퓨젓사운드의 엘리엇만에 면한 아름다운 도시로 태평양안 북부의 중심을 이룹니다.
미국의 도시 중 아시아 및 알래스카에 이르는 최단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들 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문호가 되고 있습니다.

2 인사이드 패시지

18세기 초 밴쿠버 개척자들과 금광업자들이 주로 이용하였던 해상로로 길이는 약 1,600km나 되며 알래스카의 해상고속도로(Marine Highway)와 비유되는 해로입니다. 이곳은 특히 앵커리지와 시애틀, 밴쿠버등을 잇는 해상로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유람선, 화물선 고기잡이 어선들이며 1,000여개의 섬과 수천개의 만이 있으며 24,000Km에 달하는 피오르드 해안선으로 둘러 쌓여져 있어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3 주노

알라스카 주의 주도로 인구 3만명이 조금 넘으며 미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도시입니다. 1880년에 조지프 주노(Joseph Juneau)와 리처드 해리스(Richard Harris)가 금을 발견하면서 취락이 생겼으며, 1900년 알래스카 지방의 주도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광업이 시의 경제를 주도했지만 1944년 알래스카-주노 금광이 폐광되면서 어업·임업·수산물가공업·관광업·정부사업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연어 통조림 가공업이 활발하며, 제재와 모피 동물의 사육, 낙농 등이 이루어집니다.

4 스캐그웨이

인구는 적으나 면적은 북미에서 가장 넓은도시입니다. 스캐그웨이(Skagway)라는 이름은 틀링깃 인디언의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북풍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1896년 인근 클론다이크에서 금이 발견되자 금을 캐려는 광부들이 매주 1,000명 이상 들어와 전성기 때의 인구는 8,000명이나 될 전도로 번성했으며 당시 스캐그웨이는 알래스카에서 가장 큰 도시였으나 1899년 골드러시 붐이 쇠퇴하면서 도시도 함께 쇠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5 글레이셔만 국립공원

거대한 조간빙하 지대로, 1980년 12월 2일 국립공원 및 보호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면적은 330만 에이커로 주도인 주노에서 북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지점에 있고 알래스카만에 면접합니다.
1986년에는 지구생태계 보존 지역으로, 1992년에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0종 이상의 어류, 22종 이상의 조류 외에 갈색곰·흑곰·산양·고래·물개·독수리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합니다.

6 케치칸

알렉산더 군도의 리빌러기기도 섬에 위치하며 인사이드 수로를 따라 펼쳐져 있는 항구로, 항공교통과 기선이 알래스카 해양 고속도로를 통해 연결됩니다. 천연 양항으로서 어업, 목재업, 광산업, 펄프가공업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연어·넙치 등의 어획량이 많으며, 1887년 연어 통조림 공장이 도심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이밖에 관광업도 도시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색스맨토템 공원과 토템바이트에는 많은 인디언 토템폴 소장품들이 있습니다.

7 빅토리아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는 캐나다 서쪽 밴쿠버섬에 있는 인구 약 30만 명의 작은 도시며 일년내내 온화한 기후로 각종 식물이 잘자라며 도심주변에는 녹음 우거져 있습니다. 겨울을 제외하고는 항상 꽃이 피어나고 도시조경이 아름다워 정원의 도시로 불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차트가든 등 아름다운 관광명소와 유적지가 곳곳에 남아있어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이화와 우리 어머니

장명주 (의대, ' 77)

저희 어머니(노정신)씨의 이화와의 인연은 오래 전부터 연결이 되었습니다.

배화여고를 졸업하자마자 일찍이 기독교 정신과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으셨던 외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제시대에 인화전문 가사과 (현재 가정대)에 입학을 하셨지요. (외할아버지 노준백씨는 미국에 유학오셔서 Northwestern University in Evanston, IL 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일제시대에 독립투사로 싸우시다가 감옥에 투옥되시기도 했었지요.) 칠남매의 막내 딸이셨던 어머니는 불론 큰 이모는 영문과에, 나머지 세 이모님들은 가사과 (지금의 가정대)를 졸업을 하셨지요.

졸업후 잠시동안 배화여고에서 교편 생활을 하시다가 아버님과의 만남으로 어머니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셨어요. 가정에서 여성의 위치, 엄마의 위치에 중점을 두고 자녀교육 특히 가정교육에 전심을 기울이셨지요. 되돌아 보면 어머니는 남들한테 주목 받는 그런 특별한 공로는 없었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 '어머님의 사랑'을 듬뿍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삶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깨닿게 하는데 힘을 기울이셨던 것 같아요. Values of Faith, generosity, and fairness 를 어머니 스스로 실천 함으로서 저희에게 본보기가 되기도 하셨지요.

어려서부터 대화의 중요성을 가정교육의 근본으로 하신 어머니, 지금 되돌아 기억해 보니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희에게 매를 들은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우리 남매가 서로 의견이 달라 싸웠을 때 어머니는 우리를 앉혀놓고 차분한 음성으로 우리를 이해, 설득 시키셨지요. 예쁘시고 자상하시며 요리도 잘 하시고 바느질도 잘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어쩌면 이 시대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가는 여성 상이라고나 할까요?

2006년 이화여대 북미주 동창회가 Chicago에서 열렸을때 어머니를 처음 모시고 갔었지요. 어머니가 첼부지처럼 좋아하셨던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답니다. 막상 동창회에 참석하시니까 처음에는 수줍어 하시는 것 같더니,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나중에는 음악에 맞추어 후배들과 함께 재미있게 춤을 즐기시던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는 다시 미국에서도 이화인들과의 인연이 연결되었지요.

6.25 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아끼던 물건들을 항아리에 넣어 땅속 깊이 묻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 후 다시 서울로 돌아 왔을 때는 전쟁으로 많은 것들이 파괴가 되어 그 자리를 찾을 수 없어 안타까와 했었는데 20여년이 지난 후, 집 공사를 하다 그 항아리가 발견되었지요. 그 안에서 나온 물건들 중 어머니의 대학시절이 담긴 귀중한 사진들이 나왔지요. 많이 망가지고, 탈색이 되었지만 그래도 예전의 이화대학이 그대로 보이는 것 처럼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되돌아 보이듯이….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여성상이 무엇이냐고 여쭈어 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감성과 지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美를 유지하며, 이 모든 것을 가정교육을 통해 후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여성이라고. 어머니는 자신이 갖고자 하는 image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까요.

만 88세로 지난 2월26일에 어머니는 천국을 향해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갑자기 어머니가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셨다고 느낄 때, 외로움이 닥쳐올 때, 이 글에 담겨있는 어머니는 나의 곁에 항상 존재 하고 계시다고 확신을 합니다.

어머니의 젊음이 담겨진 이화가 계속 되듯이, 이화를 통해 발원한 어머니의 가르침 이제 깊이 뿌리를 내린 어머니의 정신이 후손을 통해 계속 이어 간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 볼 때, 그 모습은 이화에서 받은 교육의 결과가 아닐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이화의 딸 우리 어머니

난(蘭)

청아 / 강정애 (의대, ' 67)

2월,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날이었다.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면서 급히 나갔다. 택배 회사의 배달원이 내게 기다란 상자 하나 남겨주고는 사인을 받아갔다. 상자에는 작은 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뉴욕 아들네 주소가 적혀 있었다.

상자를 열자마자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분홍색 꽃망울이 여러 개 달린 난(蘭)이었다. 카드에는 '엄마 생일 축하해요'라고 적혀 있었다. 아들 내외가 보낸 생일 선물을 확인하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난 화분 속에 흙이라기보다 자잘한 돌 부스러기 몇 줌과 작은 나무 조각들로 채워져 있었다. 잎사귀와 꽃망울은 생기를 잃고 시들어 가는 모습이었다. 그냥 두면 죽겠다 싶어 얼른 화분을 싱크대에 올려놓고는 한 컵의 물을 부었다. 이내 물은 화분 밑바닥 숨구멍에서 새어나왔다. 한동안 난을 보며, 아들의 어렸을 때의 아들 얼굴이 난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부터 온갖 정성 들여 난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 아들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매일 난을 쳐다보며 한겨울을 보냈다.

봄이 되자 난 화분에는 또 다른 꽃대 하나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잎사귀 사이에 숨어, 마치 엄마의 등에 업혀 외출 나온 것 같은 수줍은 모습이었다. 알맞은 환경과 사랑을 더해 주면 비록 난이지만, 인간에게 또 다른 신비함을 선물한다는 것을 실감하게했다. 난초는 꽃대가 올라왔을 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꽃대가 시들어 버린다는것도 난을 키우 면서 알았다. 삶에서 매사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듯이 아들이 보낸 난을 키우는데 새끼를 세 번 쳐서 삼 대를 아름답게 잘 키웠다.

오늘, 볼 일이 있어 밖에 나갔다가 우연히 난을 많이 파는 꽃집이 눈에 띄었다. 창문 사이로 연초록색의 풍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어느 정도 난에 대해 자신이 생긴 터라 욕심이 발동했다. 내가 늘 아끼던 그릇, 그냥 두고 보아도 참한 그릇이 생각났기 때문에 덜컹 연초록색 풍란 하나를 사 들고 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생각했던 그릇에 심었더니 보기가 남달랐다.

사람들은 대체로 난을 키우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정성 들이면 멋지게 꽃을 피울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난이 주는 아름다움과 운치는 다르게 와 닿겠지만, 나를 보는 보편적인 난의 아름다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어 좋을 듯싶다. 그런가 하면 자생하는 야생초를 사람들이 굳이 가까이 옮겨오는 이유는, 난에 인격과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싶은 인간의 심리가 아닌가 싶다. 아마 꺾이지 않고 유연하여 휘어지면서도 곧게 서 있는 난의 개성이 있기 때문이리라.

난은 매력적이다. 이 꽃만큼 매력 있는 꽃은 없다고 생각한다. 양팔을 벌려 감싸고 보듬어 안는 듯한 모습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세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군자의 마음가짐이라 싶다. 더구나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늘과 땅이 보이고 하늘엔 푸바한 사내가 땅에 있는 질박한 여인네와 사람의 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듯싶다.

또 있다. 난이 있는 방에 들어가 보라.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착한 사람과 사귀는 것은 마치 난초를 가꾸고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 오래 있으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하나, 곧 그것과 동화된다." 라는 말은 군자의 교제는 바로 난을 가꾸는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느끼게 될 것이리라.

아침 햇살을 맞고 있는 난에 물을 조심스레 준다. 돌 부스러기 한 줌 속에서 자라고 꽃봉오리를 맺는 난속에서 생명의 소리를 들으며 생명의 힘이 내게 옮겨지는 듯하다. 그런데 한 줌의 속에서 자라는 난의 숨결 속에, 세 살배기 아들은 누나가 갖고 놀다 버린 인형을 집어 흐트러진 머리를 곱게 빗겨놓는다. 그리고는 누나의 책에 올려놓고 배시시 웃는 해맑은 아들의 얼굴이 보인다.

나는 쑥쑥 커가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듯이, 난을 쳐다보며 행복해하는 나는, 아침 햇살이 반갑기만 하고 평화로움을 주는 지(知)와 애(愛)의 따뜻한 사랑이라 느껴진다.

삼대 독자와 칠공주

김정희 (가정, ' 60)

우리고향은 서부 경남 교육의 도시요 농산물 집산지인 진주다. 진주는 영남 예술제로, 임진왜란 때 적장을 안고 강물에 뛰어 내려 죽은 논개로 또 '진주라 천릿길'이라는 남인수의 가요로도 잘 알려진 도시다.

우리 김씨 가문은 흔히 말해서 손이 귀한 집안이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삼대 독자인 아들 하나에 딸이 일곱 명이었다. 나는 우리 가족의 둘째 딸로 태어 낳고 위로 딸 넷을 낳은 후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되어 온 가문의 경사이었다. 부모님과 온 동기간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더 없이 기뻤다.

그러나 그런 큰 기쁨이 우리집 딸 들에게는 순식간에 실망과 슬픔으로 바뀌어 버렸다. 친척 아저씨 한분이 찾아 오셔서 " 저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가문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너희 딸년들은 출가 외인이니 김씨 가문을 이어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찾아가서 쏟아지는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 케케묵은 남존여비의 사상이 우리집 딸들의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그 귀한 아들을 들었다 놓기도 아깝게 귀중하게 생각하셨지만 딸들에게도 공평하게 잘 대해 주셨고 하나같이 대학 교육과 미국 유학 보내는데도 힘껏 밀어 주셨다. 언니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여 고향을 떠나니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아 부모님을 졸라 나도 서울로 올라 왔다. 한번은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왔는데 남자 동생이 두 살 위인 누나 언니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여 고향을 떠나니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아 부모님을 졸라 나도 서울로 올라 왔다. 한번은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왔는데 남자 동생이 두 살 위인 누나에게 불순하게 대하는 것이었다. "얘야, 너 그러면 않되, 누나에게 사과해." 이렇게 두 세번 타일러도 소용이 없었다. 화가 난 나는 남 동생을 그만 한 대 때려주었다. 이 동생이 사흘 동안 밥을 안 먹고 비실 비실하면서 앓아 누워 버리니 아무 말도 못하고 보고만 계시던 어머니께서는 새파랗게 질리시며 걱정이 크셨다. 나 또한 남 동생이 몹시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앞이 아찔해 졌고 벌벌 떨렸다. 11살 아래 동생이니 내가 저보다 덩치가 크기는 하지만 알아 누울 정도로 때린 것 같지는 않았다. 궁리 끝에 나는 다음 날 해수욕장에 놀러 가자고 마음을 다해 동생을 달랬고 그 애는 못이기는 척 하며 부시시 일어나 따라 나섰다. 세 동생들과 함께 찾은 해수욕장에서 시원한 바람을 쐐며 우리는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후 파아란 바닷물과 따끈한 하얀 모래사장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며 재미나게 놀다 저녁때에 집에 돌아 왔다. 겁에 질려 우리들을 기다리시던 어머니께서는 그제야 숨을 돌리시는 것이었다. 이 일이 있은 후 부터 남 동생은 나를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기 보다는 좀 조심스럽지만 좋아하는 것 같았다 .

1950년 아버지의 사업이 순조롭게 번창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진주에서 6.25사변을 만났다. 진주시 가까운 사천에 공군기지와 비행장이 있는 이유로 진주와 사천은 남한의 어떤 도시보다 폭격을 많이 받았고 수복후 돌아 왔을 때는 온 도시가 잿더미로 변한 완전 폐허였다. 우리집은 임시응변책으로 급하게 두 칸짜리 판잣집을 지어 지붕은 철판으로 덮고 화장실은 저 먼데 떨어지게 만들어 겨우 하늘을 가리고 살기 시작했다. 헤어졌던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지낼 수 있다는것 만으로도 큰 축복이었다. 마침 추석을 막 지나 추수하는 때여서 아버지는 친구와 친지들에게 곡식을 빌려서 약주를 만들기 시작하여 팔리는대로 빚을 갚았다. 또 아버지의 사업이 궤도에 오르며 공장을 증축하고 자동기계까지 구입하여 약주, 정종, 사이다와 소다 등을 생산하면서 진주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기업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어서 민주화 발전으로 아버지는 초대 민선 시장으로 선출되었고 허물어진 도시위에 100년 대계를 세우는 도시계획을 하여 도로와 철교를 넓혔고 논개가 죽은 의암을 내려다보고 있는 언덕 위의 타버린 촉석루도 재건하여 시민들의 정서를 북돋아 주었다. 한편 남강의 상류에는 댐을 만들어 수력 발전소를 신축할 기초를 만드는 등 숨가쁠 정도로 의욕적인 재건사업에 열중하셨다.

나는 자라면서 아버지처럼 사업가로서의 꿈을 가졌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자로서 험악한 길이라며 공부해서 학자가 되라고 권유하셨다. 그 말씀대로 공부하여 학위도 받고 대학교수로, 학자의 자리도 잡았으나 사업가로서의 어릴 적 꿈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알밉지만 사랑스러운 삼대독자 남동생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취직생활을 하다가 가족사업을 시작해 보고 싶다고 내게 합세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사업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함께 뛰어들어 생산이다 무역이다 하면서 우리는 많은 실수도 하며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도시들을 뛰어 다녔다. 그때 나는 한국 자전거를 상대로 덤핑 기소를 한 미국 업체들에게 대항하여 DC에 있는 Trade Commission에 흉일점으로(이 때만 해도 이 분야에 사무직원 외에는 여자들은 별로 없었다) 한국기업을 대변하여 덤핑 기소를 기각시켜 대한민국의 자전거를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했고 더 나아가 급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만들었다. 그 후 우리 회사가 수출 산업훈장을 받아 함께 기뻐하던 일들을 돌이켜 보면 "수출을 해야만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온 국민이 열띠게 움직였던 그때가 생생히 떠오르며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조국이 매우 자랑스럽다.

IT의 급성장과 함께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시대는 여성의 입지를 또한 바꾸어 놓았다. 10여년 전만 해도 한국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중동국가 외에 일본 다음으로 제일 뒤져 있다고 평가 받았는데 지금은 다르다. 다른 나라들 뭇지 않게 여성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현재 두 정당의 총수가 다 여성이며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니 여성들이 사회생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세월과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다. 남자동생을 낳았다고 돌아 앉아 눈물 흘린 시대는 역사와 함께 사라져 가고 있으니 이 시대의 한 일원이 된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공평하게 활동할 수 있을 차세대 여성들에게 많은 격려를 보내고 싶다.

이화

이지연 (의대, ' 67)

꽃이라 이름하여
아름답지 않은 꽃이 있으련만
신앙의 땅에 태어나
진리탐구, 박애정신으로
여성교육의 햇불을 밝히고
세상의 빛 소금되라는
이념으로 정진하는
진선미의 이화동산
맑은 향기가 퍼지고 있어요.

이화동산에서 영글어진 꽃들이
지구촌 세계곳곳에 복음 전하며
사랑의 꽃씨 심어 피어나고 있어요.

詩

나의 이야기

4대가 함께한 20일

박정자 (의학, ' 69)

무섭게 춥던 한국의 2월 날씨가 친정 어머니 장례식 하루 전부터 많이 풀려 따뜻한 일기 가운데 장례식을 잘 치뤘다. 미국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보며 갑작스레 당한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로이 잘 치뤄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92세에 돌아가셨으니 남들은 다들 호상이라고 하지만, 이억만리 멀리 떨어져 살고있는 내게는 늘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더욱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의 일생을 돌이켜 보면 어머니는 일제시대와 6.25동란으로 인한 피난시대 그리고 수복 후 어려웠던 시절을 다 겪으셨다. 어머니는 딸 여섯에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나'라는 존재는 늘 뒤로 하고 그저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로 한 평생을 열심히 살아 오신 한국의 전형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이셨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좀 대접을 받을 만 했을 때는 어머니는 몸이 쇠약해지셔서 여행을 하시기가 힘드셨고 대신 항상 집안에서 자녀들 걱정과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은 색종이 접는 일에 열성을 쏟으셨다. 7남매에게 종이학 1000개와 거북이 1000개씩을 나누워 주시며 본인이 닭띠가 되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 무언가를 해야한다고 털어 놓으시며 그렇게 기뻐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 오른다. 모든 자녀들의 건강과 축복을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 같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계란 흰자를 얼굴에 바르신 채 청소를 하신 후 씻으시며 딸들에게 피부관리며 맨손체조로 몸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일러 주시던 어머니… 시부모님께 잘 해야 복을 받는다고 늘 말씀하시던 어머니… 시간이 나는 대로 재봉틀로 손수 옷을 만들어 입으셨던 어머니께서는 예쁘고 작은 이불을 정성드려 만들어 손주들에게 하나씩 안겨 주셨던 자상한 분이셨다

어머니와는 달리 나는 딸만 둘을 두었다. 34살에 결혼한 둘째 딸이 1년 반이 지나서야 아이가 들어섰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부부는 한없이 기뻤다. 지난 2월 둘째 딸의 해산을 앞두고 한국에서 내려오는 말로, 딸이 아이를 낳으면 3주는 친정 엄마가 산후조리를 해 준다고 하여 나는 큰 딸과 똑 같이 작은 딸 산후조리를 계획하고 택사스주 달라스에 갈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 그런데 예정일 보다 17일이나 이르게 예쁜 딸을 순산하여 우리 부부는 부랴 부랴 달라스 딸네로 갔고 기쁜 마음으로 산모와 신생아 손녀를 돌보며 하나님께 심심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내일이면 3주의 산후조리를 마치고 돌아갈 예정인데 먼저 집으로 돌아간 남편이 전화로 친정 어머니의 임종소식을 전해왔다. 하루 전날 새벽녁에 응급실에서 여러명의 환자로 애쓰며 당황하는 꿈속에서 막 깨어났을 무렵 나는 안도의 숨을 돌리기도 전에 남편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은퇴한 후 나는 병원에서 일하는 꿈을 꾸지 않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꿈이었다. 아마도 내게 그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던 어머니의 소천하심을 알리는 그런 꿈이었던 것 같다.

지금 돌이켜보면 손녀가 예정대로 태어났으면 내가 예정대로 산후조리를 3주 다 못해 줄뻔 했고 또 어머니께서 따뜻한 날을 택해 하늘나라로 가신 이 모두가 우리로서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푸근한 날을 택해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을 마지막까지 위해 주신 어머니이셨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지난 20여일은 우리4대(어머니, 나, 딸 그리고 손녀)가 퍽 의미있는 시간을 함께 한 시간들이었다. 돌아 오는 길에 나는 혼자 조용히 어머니, 나, 딸 그리고 손녀, 여자 4대의 공통점과 다른점은 무엇일가를 생각해보며 세월이 흘러 생활방식은 다를지라도 엄마라는 입장에서의 조건없는 모성애는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 저 밑에서 형용할 수 없는 싸한 느낌이 올라옴을 느꼈다.

어느 은퇴한 노인의 소망

강화영 - 김명자 (약학, 64) 동창의 부군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나는 그저 은퇴한 한 노인입니다.

가을 이슬비속에 이리 저리 나부끼는 한 포기 낙엽처럼 내일을 예측할 수 없지만, 주님이 덤으로 주시는 하루 하루를 축복의 날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길에 서 있는 노인은 미래보다는 현재 또 현재보다는 과거의 생각에 집중되겠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길을 잘 정리해서 곱게 깨끗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살다 하나님 곁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겠지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뜻. 언제 어떻게 이 세상과 작별을 할지 모르겠지만, 꼭 가야할 마지막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할 지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요. 이처럼 거창하게 이름 석자를 남길만한 위인이 못 되는 이 노인의 작은 바램은 순진하고 소박하지요

가진 것 없는 사람이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나 하루 세끼 먹는 건 마찬가지……
늙고 병들어 빈손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

름은 남기지 않더라도 가는 길 뒤편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나 없도록 허망한 욕심 모두 버리고, 베풀기도 하고, 양보하고, 덕을 쌓으며 그저 고요하게 살다가 조용히 떠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의 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바램이 있다면, 우리가 제2의 고향으로 택한 미국. 그리고 우리 2세들이 살아가고 있는 미국이 계속 번창하여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뒤에 두고 온 대한민국 조국산천, 수많은 70대 노인들이 젊은 피와 목숨을 걸고 지켰던 자유 대한민국이 훌륭하고 능력있는 새 지도자를 만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은퇴한 모든 노인들을 사랑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God bless America

대한민국 만세

Long live all retired seniors!

Washington D.C.
워싱턴 D.C.

임원진 (2011)

회 장: 김경애 (서양화, 68)
부회장: 강영미 (서양화, 84)
홍옥선 (교심, 77)
총 무: 김희진 (서양화, 85)
이옥수 (과교, 69)
재 무: 우다영 (무용, 67)
서 기: 정혜전 (동양화, 89)
미술교육부: 김정화 (조소, 82)
정옥지 (동양화, 65)
이희자 (생미, 65)
음악부: 이명혜 (피아노, 74)
종교부: 오정숙 (서양화, 88)
모금부: 김광자 (불문, 66)
역사부: 홍성자 (영문과, 64)
후원 이사장: 김홍자
(섬여 58입학 07 졸업)

2011년도 행사보고:

• 'Everyday Gourmet Cooking' 요리강습은 반응이 매우 좋아서 '음식끝에 정 나지요!'라는 모토 아래 매달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창들이 아름다운 집을 제공해 주셔서 매달 반가운 만남을 기다리며 보람있고 화기애애한 모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Blossoming Spring@ KORUS House: 3 월에 있었던 'Blossoming Spring' '이화동창 전시회'는 많은 관심과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 이화동창과 동창가족과의 피크닉/과수원: 7월 메릴랜드 교외에 있는 아름다운 과수원에 가서 싱싱하고 알맞게 익은 복숭아, 토마토 오이 등을 사서, 맛있는 오이 장아찌도 함께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Ewha Art show & sale: 10월 북미주 동창회에서 작품 전시회와 동시에 판매가 있었고 판매액의 일부는 북미주 동창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 북미주 동창회 총회에 참가한 워싱턴지회 동창들은 장기자랑에서 '백조의 호수'를 선보여 많은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 조각보 보자기 만들기, Holiday 장식품 만들기

• 밀알선교단 - 장애 어린이 크리스마스행사를 위한 성금 전달을 했습니다.

• 워싱턴 지회 동창회는 임원 한사람 한사람 모두 동창들간에 친목과 우리가 몸담고 살고있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Philadelphia
필라델피아

필라 여성회 가정 상담소가 주최하는 열린 강좌가 지난 4월 22일 오후 4시 블루 벨의 Lai Lai Garden 식당에서 있었다. 이화여대 동창인 김영미(교심, 72)회장은 5년째 필라 여성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멀리 뉴욕에 사는 이윤경 동창(가정, 67)의 '세계 종교에 대한 이해' 란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 된 퍽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이 동창은 "왜 종교가 인류 역사상 싸움의 요소가 되는가?"를 먼저 풀어 나가며 인간이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 해 가는 것이 인간의 성숙도라고 설명했다. 세계의 종교- 힌두교, 유교, 도교, 불교, 유대교 그리고 이스람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필라 여성회 가정상담소는 1986년 4월 필라델피아 연합교회에서 18명의 회원이 모여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소장 이태영 박사로 부터 필라지부로 인준받아 필라 여성회로 창립을 했다. 과거 25년간 교포사회의 문제를 무료상담(2011년 5월까지 4208건) 해왔고 재미교포 지식향상을 위한 교양강좌를 그 동안 215번 열어 지역 한인들의 시야를 넓히고 올바른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지회 소식

Chicago
시카고

2010년 7월 1일부터 구은서 회장을 중심으로 시작한 시카고 지역 동창회는 2년 임기의 후반부에 접어 들었습니다. 차기 회장으로 송복진 동문을 선임하고 인준을 거쳐 2012년 7월 1일부터 새 임기를 시작하는 준비를 맞쳤습니다.
다음은 지난 시카고 지회 소식 이후 시카고 지역 동창 소식입니다.

- 동창회 야유회:
  7월10일(일) 글렌뷰 소재 블루 스타 메모리얼 팍에서 동창 야유회를 개최했습니다.
- 가을 정기 임원 이사회
  9월 24일 12시 아리랑 가든에서 2011년 가을 정기 임원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박계춘 서기의 서기 보고, 성유나 총무의 사업 보고, 이정화 회계의 회계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북미주 총동창회 관련한 토의와 임필빈 비뇨기과 의사를 초빙 '건강한 성생활'에 관한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김동길 교수 강연회
  11월 5일 오후 8시 윈필의 제일 연합 장로교회에서 김동길 교수 강연회가 시카고 지역 동창 협의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시카고 지역 이대 동창회 구은서 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많은 이대 동문들도 참석했습니다.
- 연말 모임
  12월 9일 문화회관에서 연말 모임을 가졌습니다. 6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 게임과 노래자랑 등으로 친목시간을 가졌습니다.

총무 성유나(영문, 79)

- 봄 정기 임원 이사회
  3월 17일 한인 문화회관에서 2012년 봄 정기 임원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서기보고, 사업보고, 회계 보고에 이어 구광자 Nominating Committee Chair의 홍명희 차기 이사장 인준이 있었습니다. 한경희(약대 61년 졸업), 신민자(영문 61년 졸업), 김혜자(성악 68년 졸업)의 신임 이사 인준, 차기 송복진 회장의 차기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발표 및 승인, 차기 임원진 소개등이 있었습니다. 김정희 자문 위원의 북미주 총동창회 행사 중간 보고 및 5월 메이데이 행사에 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한편, 특별 순서로 하재원 공인 재정, 투자 상담가의 '불안한 시대의 현명한 투자' 강의를 경청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Vancouver
밴쿠버

회장: 오유순 (약학, 69)
부회장: 박혜정 (관현악, 82)
총무: 배은영 (기독교학, 90)
서기: 강은아 (생활미술, 90)

2011년 8월 8일: 김선욱 총장과의 만남
2011년 12월 18일: 이화여대 송년모임
2012년 2월 11일:구정모임
2012년 7월 00일: 가족 야유회
북미주 동창회: 11월 1일-11월 4일
2012년 12월 00일: 송년모임

사진은 왼쪽부터 총장님 비서,
김선욱 총장님, 옆은 전에
이화여대에서 근무하셨던 Dr.김철규,
그리고 부인(영문, 64)입니다.

총장님의 방문은 Canadian and Korean Scientist's Forum 에 참석을 하신 후 지회 동창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셨습니다.

지회 소식

San diego
샌디에고

샌디에고 이대 동창회 (회장 조효은)는 올 해 4번의 모임을 계획하고 지난 3월 9일에는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ampus에 전시되어 있는 Stuart Collection을 Director Mary Beebe 안내로 관람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작품은 백남준씨를 포함해 국제적으로 알려진 작가들의 작품들입니다. 올 6월에 설치가 완성될 서도호씨의 작품은 공과대학의 7층 건물 위에서 떨어질 듯한 기울어진 집입니다. (사진 참고)

이 작은 집은 tornado로 날려 올라가 가까스로 매달려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 "Fallen Star"는 어쩌면 집을 떠나 대학에서 새로운 학문을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 느끼는 흔돈, 이민자 또는 피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UCSD campus 를 방문하여Stuart Collection의 18개 작품을 감상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현재 저희 샌디에고 지회동창회는 50여명의 동문들이 있으며, 자주 만나 친목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임은 6월 1일로 Italian cooking 시범과 luncheon으로 모입니다.

Las Vegas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지회는 한달에 한번씩 만나 동문들의 소식도 듣고 좋은 의견을 나누며 친목을 다지고 지냅니다. 그리고 우리 지회에서는 좀 더 보람된 일을 하려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원의 하나로 우선 작은 정성으로 매달 모교 동창회에 장학금을 조금씩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송년 파티때는 이곳에서 유명한 Turnberry Golf Club에서 부부 동반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 하여 즐거운 년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이대 음대를 졸업하고 Kansas 음대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마친 유능한 재원인 주선영 동창의 피아노 연주회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후원금도 지급했습니다.

2012년도 북미주 동창회에서 계획한 Alaska Cruise 여행에 참여하는 저희 라스베가스 지회 동창들은 벌써부터 들 뜬 마음으로 7월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회에서는 모두 10명 참석 하는데, 장기자랑에 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 요즘 한달에 두번씩 만나 line dance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한마음이 되어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으며 올 동창회도 성공적이 모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기 김계자 (신방, 65)

故 김경애 회장을 그리며...

워싱턴 동창회에서 회계로 함께 일하던
김정화 후배가 뜻하지 않게 일찌기
세상을 떠난 김경애 회장을 그리며
그분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한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내온 글과 함께 북미주동창회 동창들의
애도의 뜻을 삼가 표하고저 한다.

동창들을 위하여 일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다시 찾은 고 김경애 회장님!

고 김경애 회장님께

이런 것을 청천 벽력같은 소식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함께 소리 내 웃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김경애 선배님을 뵈 수가 없으니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사실인가 봅니다.

김경애 선배님의 선하셨던 모습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봅니다.
항상 해 맑게 웃으시며
저희 후배들에게도
깎듯이 존대를 해주셨던 선배님,
이화동창의 회장을 맡으시며
힘든 여러 가지 일에도
"잘 되겠지 뭐~"하고는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으시던 선배님,
우리에게 리더강습을 하시며
꼼꼼하게 설명하시던 살림꾼 선배님,
함께 미술전시회를 준비하며
수줍어하시던 소녀 같은 선배님,
선배님이 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만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기억은
계속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회장님의 아름다웠던 미소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편히 주님의 곁에서 쉬세요.
그곳에서 선한 모습으로 선한 미소로
저희를 지켜주세요.

김경애 선배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었다는 말은
다 전하지 못했지만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화 (82 조소려)올린

사랑하는 한영숙 선배님께,

댁이 피곤하셨죠?
지금도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으시리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김경애 회장님의 장례식 후에,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직 부모님의 장례식을 경험하지 않은 저로서는
이별의 슬픔이 이렇게 크구나 싶고요,
결혼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첫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엄마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아기를 낳아 엄마가 되고,
아무런 예측없이 죽은 또한 어느날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닐까?

고 김경애 회장님께서는 행복한 분이십니다.
오랜 먼곳에서 서슴지않고 달려주시는 사랑하는 선배님이셨기에
그 영혼은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가셨으리라 확신합니다.
화려한 꽃들과 아름다운 음악의 선물이
충분히 회장님의 영혼을 기쁘게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먼 훗날,
한영숙 선배님께서 운명하시면,
그리고 만약 저와 제딸이 살아 있다면,
꼭가겠습니다.
왜냐면, 선배님은 너무나도 멋진 인생을 사시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선배님을 본 받아 의미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딸아이는 이미 사후 장기기증을 서약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 자지도 못하면서
헌혈을 일년에 두번씩하는 딸아이의 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라고합니다.
선배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고 김경애 회장님도 그런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앞으로, 고 김경애 회장님께 못다한것들을
선배님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정혜전 올린 (동양학, 90)

임원 명단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2012 임원진 명단

직명	성명	학과/졸업년도	지회명
이사장	한영숙	(영문 60)	Los Angeles, CA
회장	장명주	(의학 77)	Sioux Falls, SD
제1부회장	송복진	(영문 73)	Chicago, IL
사무총장	임성숙	(물리 81)	Los Angeles, CA
준비위원장	권영자	(의학 68)	Seattle, WA
총무	장용희	(사회 74)	San Francisco, CA
서기	성유나	(영문 79)	Chicago, IL
회계	이영희	(비서학 73)	San Diego, CA
감사	홍명희	(의학 69)	Chicago, IL
자문위원	조용옥*	(의학 59)	Chicago, IL
	김은경	(의학 57)	San Diego, CA
	김정희	(가정 60)	Chicago, IL
	이희련	(의학 63)	Las Vegas, NV
	이학혜	(의학 60)	Memphis, TN
	김광자	(불문 66)	Washington, DC
	최경숙	(영문 66)	Southern, NJ
	조효은	(교육 71)	San Diego, CA
공천위원	한영숙*	(영문 60)	Los Angeles, CA
	이정은	(가정 60)	Citrus Hills, FL
	권오화	(가정 61)	Chicago, IL
	장명주	(의학 77)	Sioux Falls, SD
모금위원	한영숙	(영문 60)	Los Angeles, CA
	김광자	(불문 66)	Washington, DC
재정관리위원	김정희*	(가정 60)	Chicago, IL
	박혜경	(화학 82)	Las Vegas, NV
	이영희	(비서학 73)	San Diego, CA
회칙개정위원	장명주*	(의학 77)	Sioux Falls, SD
	이희련	(의학 63)	Las Vegas, NV
	이정은	(가정 60)	Citrus Hills, FL
	윤방순	(정외 69)	Seattle, WA
	이주연	(의학 59)	Plano, TX
	이화섭	(약학 60)	Chicago, IL
사회봉사부	심현숙*	(사복 62)	Minnesota, MN
	오금녀	(영문 49)	Minnesota, MN
	안정옥	(의학 70)	Los Angeles, CA
예배부	오정숙	(서양 88)	Washington, DC
	고인나	(교육 60)	Washington, DC

부서명	성명	학과/졸업년도	지회명
편집부	구광자*	(가정 67)	Chicago, IL
	유진순	(심리 57)	Chicago, IL
	이정순	(화학 57)	Chicago, IL
	최경숙	(영문 66)	Southern, NJ
	호진희	(가정 68)	Los Angeles, CA
음악부	이명혜*	(피아노 74)	Washington, DC
	조남선	(성악 73)	Las Vegas, NV
	김소영	(불문 63)	San Diego, CA
	윤미라	(기악 60 입)	San Diego, CA
홍보부	이동우*	(영문 57)	Hernando, FL
	권오화	(가정 61)	Chicago, IL
	윤용임	(의학 64)	Rifton, NY
	이삼희	(가정 68)	Morganville, NJ
	김화숙	(약학 68)	Los Angeles, CA
	김명미	(의학 67)	Los Angeles, CA
회원부	임성숙*	(물리 81)	Los Angeles, CA
	이삼희	(가정 68)	Morganville, NJ
	장현자	(의학 67)	Los Angeles, CA
	임삼규	(영문 54)	Las Vegas, NV
	민경해	(영문 65)	Vancouver
	윤영희	(의학 70)	Welsh, LA
장학부	고순정	(의학 77)	Los Angeles, CA
	이상인	(의학 57)	Orlando, FL
	김정순	(의학 77)	Los Angeles, CA
	유진순	(심리 57)	Chicago, IL
	윤중식	(의학 59)	Chicago, IL
교육부	이윤경*	(가정 67)	Scarsdale, NY
	윤방순	(정외 69)	Seattle, WA
	김영희	(약학 68)	Chicago, IL
미술부	김홍자*	(심예58입07졸)	Washington, DC
	김경애	(서양화 68)	Washington, DC
	강영미	(서양화 84)	Washington, DC
연예부	구은서*	(간호 73)	Chicago, IL
수필집 편집위원	강정애	(의학 67)	Los Angeles, CA
	호진희	(가정 68)	Los Angeles, CA
	김희성	(의학 62입)	Los Angeles, CA
	최경숙	(영문 66)	Southern, NJ
	홍연숙	(영문)	Los Angeles, CA

북미주 동창회 기금 / 총회 이사회 Agenda

북미주동창회 기금	
성 명	Maiden Name: 영문이름:
남편이름	
주 소	Street City State ZIP
전화번호	Home: Cell:
Email	
전공 및 졸업년도	
직 업	

이사회비	$
발전기금	$
장학기금	$
2012년도북미주동창회 행사 후원비	$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 후원금	$

- **이사회비: 매년 $100.00**
- 발전기금, 장학기금, 행사 후원비 및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건립 후원금: 뜻하시는 대로
- Please make the check payable to: **EWUAANA**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 보내실 곳: Younghee Yi (회계)
  12772 Jordan Ridge Court
  San Diego, CA 92130
- 이화여대 북미주동창회의 발전은 동창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 동창회에 내시는 모든 기부금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임원 이사회 Agenda

July 9 (월요일) 9:00-10:30 a.m.

- 개회선언
- 이사소개
- 전 회의록 낭독
- 사업보고
- 결산 및 예산안 심의
  - 재정관리위원회 보고
  - 2012 결산보고
  - 2013 예산안 심의
- 공천위원회 보고
- 임원 소개
  - 신임회장 / 수석부회장 / 제2 부회장 소개
- 경과보고: 통합 동창회를 위한 활동
- 2013 총회 및 사업계획 발표
- 기타 안건과 공지사항
- 폐회

총회 Agenda

July 12 (목요일) 9:00-10:30 a.m.

- 개회선언
- 회장 환영사
- 이사장인사
- 전 회의록 낭독
- 사업보고: 동창회 활동보고
- 결산 및 예산보고
- 경과보고: 통합 동창회를 위한 활동
- 2013 총회 및 사업계획 발표
- 신임회장 / 수석 부회장 / 제2 부회장 / 인준
- 신임회장인사
- 기타 안건 및 공지사항
- 폐회

*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김명미 (의대, ' 67)

ABC 상담대화 교육원

ABC 사역내용
개인 혹은 구룹으로 교육/상담합니다.

- 대화교육
- 뇌건강 교육
- 부모 교육/ 상담
- 특수 부모교육/ 상담
- 부부교육/ 상담
- 청소년 교육
- 가족 상담
- 정신건강-정신질환 상담 교육
- 행동(습관)장애, 성적부진

I. 대화 교육
- 일반 대화
- 부부 대화
- 부모자녀 대화
- 청소년 대화
- 동료 대화

II. 영어권 대화 교육

III. 대화교육 감사양성과정

I. 뇌-정신건강 교육
- 뇌의구조와 기능 (Amazing Brain Communication)
- 뇌 건강과 인간행동, 감정조절, 성품형성
- 주요 정신질환 (Major Mental Illness)의 이해
- 기분장애 Mood Disorder
- 청소년, 아동 행동, 학습장애
- 마음의 상처나 충격에 의한 정신 질환
- 약물 치료의 효과와 후유증
- 자살, 타살
- 정신적 문제와 가정, 사회, 종교, 학교, 자립 토론

II. 영어권 뇌-정신건강 교육

대표-김(여)명미 (의대, ' 67) 원장- 고명희

2660 W. Woodland Dr. # 111
Anaheim, Ca 92801

714-220-0047

www.abcnice.org

e-mail: abclove77@gmail.com

RYU MEDICAL CORPORATION

여천기 정신과 전문의

Chun Kee Ryu, M.D.

Diplomat of the American Board of Psychiatry & Neurology

Tel.(714) 543-4447
Fax. (714)543-4488
1633 E. 4th Street #138
Santa Ana, CA 92701

SINCE 1985

hong-ik
DESIGN & PRINTING
홍익디자인인쇄

200 N. Westmoreland Ave. #A,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2-5311 *fax* 213-382-5312 *e-mail* hongikprint@gmail.com

Midwest Pain and Rehabilitation Clinic, Ltd.

Dr. Myung J. Cho MD. DABMA
Medical Director

Chronic Pain Management *Medical Acupuncture*
Physical Therapy
Located in the Independent Medical Arts Building

6709 South Minnesota Ave. Suite 201 Sioux Falls, S. D. 57108
Phone: 605-275-3070 Fax: 605-275-3071 장명주 (의대, ' 77)

전미주 총판매 1위!!

관광도 일등! 티켓도 일등! 대한항공 최우수 대리점

삼호관광

- 고국방문
- 건강검진(연대 세브란스 병원)
- 일본/중국
- 유럽여행
- 남미-브라질/페루
- 성지순례
- 크루즈
- 하와이
- 미동부관광
- 멕시코칸쿤
- 뉴질랜드/호주/피지
- 동남아
- 캐나다록키
- 스키투어
- 미서부관광
- 그랜드캐년/브라이스
- 자이언캐년
-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 스카이워크/라스베가스
- 세도나/오크크릭캐년
- 요세미티/레익타호
- 기차여행

전미주 오객률 1위

관광도 일등!! 티켓도 일등!!
전세계 최고급 호텔 멤버쉽!!

대한항공 9년 연속 최우수 1등 대리점

대한민국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
드디어 2011년 5년 연속 수상!

자연은 우리의 생명이자 미래입니다.
순수한 여행을 통한 자연과의 만남을 소중히 지켜온 삼호관광 은
고품격 관광을 추구합니다.
세심한 정성과 정직한 마음 바로 인간과 자연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삼호관광 의 고품격 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루즈 담당: 하준호 실장

예약 213.427.5500

3030 W. Olympic blvd., #104., CA 90006 (올림픽과 아드모어 코너 VIP 플라자내)

명문대 캠퍼스에서 낭비없는 여름방학을!

Avoid Summer Learning Loss.

Academic & Leadership Camp

Ucla
July 22, Sunday
to
Aug 4, Saturday
2012

- Tuition: $3,925 (Resident) / $2,950 (Commuter)
- Age: 5th~12th Grades

기숙생 전원은 캠퍼스 기숙사에서 교사들과 함께 숙식하게 되며,
통학생 스케줄은 오전 8시~오후 8시, 그리고 1일3식 포함됩니다.

Berkeley
July 31, Tuesday
to
Aug 14, Tuesday
2012

원장 장용희 (사회학, ' 74)

Summer Camp at Stanford <2011>

Junior Excel Camp
쥬니어 엑셀 캠프
(5th-8th)

- Reading and Writing in Varied Subject Matter for Comprehension and Vocabulary Building
- Comprehensive Grammar Review, Expository and Persuasive Writing, Public Speaking/Debate
- Math Review: Pre-Algebra, Algebra, Geometry
- Newsletter "Global Edu Times" Design and Edit

College Prep Camp
칼리지 프렙 캠프
(9th-12th)

- English Literature Critical Reading and Writing
- Math Review: Geometry, Pre-Calculus, Calculus, Trigonometry, AP Calculus, Statistics
- College Counseling, Personal Statement Writing Workshop

SAT/ACT Boot Camp
SAT/ACT 준비반
(11th-12th)

- Comprehensive Review in SAT Math and Verbal: Critical Reading, Grammar, Essay Writing
- Daily SAT-Frequent Vocabulary Study and Test

Daily Sample Schedule

7:30	Breakfast
8:30	Daily Vocabulary Test
9:00	Grade Level Math
10:30	Critical Reading & Writing
12:30	Lunch
1:30	Grammar Review & Writing
3:30	SAT Review or Newsletter
5:30	Dinner
6:30	Organized Sports/Recreation (Movie Night on Weekend)
8:00	Study Hall / Homework
10:00	Floor Check & Room Check

* Schedule may vary for each program.

www.GlobalEduCamp.com / 1-877-738-2010 / *cj@globaleducamp.com*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4401 S. Minnesota Ave. Sioux Falls, SD 57105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CANOGA PARK CA
PERMIT # 488

©2012 NCL Corporation LTD. Ships' Registry: Bahamas and United States of America.